

“미지·미래 둘 다 제 모습...우는 모습도 디테일로 구분”

박보영 ‘미지의 서울’에서 1인 2역 소화...“몰라서 용감했는데, 다시는 못 할 듯”

배우들에게 있어 1인 2역은 ‘양날의 검’에 비유되고는 한다. 같은 얼굴로 다른 두 인물을 표현해내는 연기는 잘나의 표정과 눈빛 같은 한곳의 디테일에 좌우되기 때문에 난도가 높지만, 잘 해 내기만 하면 연기자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영을 앞둔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1인 2역 연기 중에서도 특히 연기하기 까다롭다는 일관성 쌍둥이 역에 도전한 박보영은 이러한 위험부담을 알고, 보란 듯이 연기력을 입증해냈다.

최근 만난 박보영은 “몰랐으니까 용감하게 도전했는데, 어떻게 촬영하는지

안 이상 다시는 (다시 도전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대본이 너무 욕심나서 일단 질러놓고, 계속 부담감에 시달렸던 것 같다”며 “첫 촬영 전날에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촬영 중에도 무수한 고비를 느끼며 실패를 경험했다. 촬영 마지막까지도 계속 물음표가 남았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미지의 서울’은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인생을 맞아꾸는 거짓말로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다.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는 동생 유

미래와 책임감 강한 완벽주의자 언니 유미래 역을 맡은 박보영은 두 쌍둥이, 그리고 유미지인 척하는 유미래와 유미래인 척하는 유미지까지 총 네 가지 모습의 캐릭터를 표현해냈다.

미래와 미지 중에, 연기하면서 특히 더 마음이 갔던 캐릭터는 미지라고 한다.

박보영은 “저도 살면서 인생에서 실패와 낙담을 경험해봤고, 미지와 비숙하게 ‘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역 배우로 데뷔해서 감독님



배우 박보영 <BH엔터테인먼트 제공>

한테 혼나고 집에 가면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싶을 때도 많았고, 온 우주가 나에게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기회가 안 닿을 때도 있었다”고 되짚었다.

박보영은 “제가 이 드라마에 끌렸던 이유는 기획 의도 때문이었다”며 “이 드라마는 겉에서 보기에는 남의 삶이

더 좋아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모두가 각자 나름의 고통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메시지에서 더 나아가, 우리 드라마는 스스로에게도 조금 더 관대해지자는 말을 전하고 있다. 부족해 보일지언정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살고자 하는 모든 행동을 용감한 것이라는 말을 저도 이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2006년 EBS 드라마 ‘비밀의 교정’으로 데뷔한 박보영은 배역마다 사랑스럽고, 통통 튀는 매력을 불어넣는 덕에 나이를 서른을 넘긴 지금까지도 박보영과 ‘러블리’를 합친 ‘뽀블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재난으로 삶이 무너진 생존자(‘콘크리트 유토피아’), 중증 우울증 환자(‘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간호사(‘조명가게’) 등을 연기하는 등 기존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캐릭터를 선택하고 있다.

박보영은 “배우로서 너무 하나의 이미지가 굳혀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 안에 있는 여러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며 “작품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작품을 한동안 택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벌써 어느덧 데뷔한 지 20주년 이터라고요. 지금까지의 연기 생활을 돌아보면, 성장해가는 과정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고요. 이제야 조금 성장한 기분이 듭니다. (웃음)”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6월 7일 천문역원 (062)673-2427
子	쥐띠: 서두르다가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36년생 때를 맞춰서 천금 같은 돈이 들어온다. 48년생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된다. 60년생 큰돈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72년생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지금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라. 84년생 꺼내기 힘든 얘기가 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야 한다. 96년생 오늘날의 행동을 신리롭게 살게 될 일로써는 대일조하게 한다. 08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행운의 수: 14 행운의 색: 노란색	
	소띠: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 이익을 보게 된다. 37년생 지금 고비를 넘기면 한동안 문제가 없을 것이다. 49년생 괜한 고집을 부리면 손해 보게 된다. 61년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이 연달아서 생긴다. 73년생 절악 정신이 필요하다. 딱히 필요도 없는 것을 사게 되거나 평상시에 안 사던 것도 사게 된다. 85년생 구관이 명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97년생 행복한 것만 상상하라. 행운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09년생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산다 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행운의 수: 58 행운의 색: 민트색	
丑	호랑이띠: 뜻은 있으나 뜻을 이루기는 어려울 때다. 38년생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얻는 것도 없이 손해만 보게 된다. 50년생 머리를 아프게 하는 골치거리가 해결 된다. 62년생 쓸데없는 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74년생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86년생 다시 한번 점검하라.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어도 완벽하다는 것은 없다. 98년생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 10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니 말이 술술 나온다. 행운의 수: 03 행운의 색: 주황색	
	토끼띠: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 멀리가거나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날이다. 39년생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오해할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 51년생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63년생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부부 사이의 정을 더 돈독하게 해준다. 75년생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돈 쓰는 것을 아끼지 마라. 87년생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된다. 99년생 아무 생각 없이 순간적인 기분으로 한지출이 주머니를 비게 한다. 11년생 자꾸만 지난 일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행운의 수: 45 행운의 색: 빨간색	
寅	용띠: 그동안 못해본 것을 해보면서 삶의 여유를 누려보라. 40년생 적은 돈이라도 그냥 쓸 생각이 아니라면 빌려주지 마라. 52년생 지극히 일부분만 알고 다 안다고 판단하지 마라. 64년생 축 처져서 다니던 오던 복도 돌아난다. 76년생 속에 있는 감정을 꼭 누르고 있지 마라. 겉으로 표현하고 다 쏟아내야 안으로 쌓이지 않는다. 88년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서 행복해진다. 00년생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12년생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다. 힘들어도 복이 없다는 말은 하지 마라. 행운의 수: 07 행운의 색: 살구색	
	뱀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가족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생기겠다. 41년생 자기 맘대로 하다가는 낭패를 겪는다. 53년생 그 어떤 선물보다 자녀가 행복하게 해준다. 65년생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자. 77년생 아무런 내색도 하지 말고 지나가야 한다. 89년생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진심이 전해지고 소통된다. 01년생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것이다. 행운의 수: 23 행운의 색: 노란색	
卯	말띠: 엉뚱한 곳으로 불뚝이 될 수 있다. 42년생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만사가 편해진다. 54년생 반갑게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다. 66년생 어제까지의 의미가 없었던 일이 오늘 큰 의미로 다가온다. 78년생 그동안 쌓아온 덕이 큰 역할을 해준다. 90년생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02년생 마음이 어둠을 향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행운의 수: 79 행운의 색: 은색	
	양띠: 횡재수가 있으니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해도 되겠다. 43년생 말하면서 답답했던 속이 다 풀릴 것이다. 55년생 건강과 관련해서 과대광고의 유혹을 조심하라. 67년생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해서 병을 키우지 마라. 79년생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 얻는 것이 있겠다. 91년생 아왕에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해야 할 것이다. 03년생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 행운의 수: 23 행운의 색: 초록색	
辰	원숭이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행운의 빛이 내 주변을 환하게 비추줄 것이다. 44년생 주고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라. 56년생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계산기로 두리더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 68년생 두 모지 얹두가 나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생 친절이 과한 사람을 경계해야 할 때다. 92년생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마라.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04년생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갈 수 있게 된다. 행운의 수: 27 행운의 색: 곤색	
	뱀띠: 길게 끌지 말아야 한다.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45년생 차라리 잘 되었고도 생각할 만한 일이 있겠다. 57년생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지기도 모르고 지나간다. 69년생 아무로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라. 81년생 이해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보라. 93년생 생선 같은 것을 아끼려다 큰 것을 놓치기 마라. 05년생 자유롭게 상상력을 키워보라. 금광이 되어줄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행운의 수: 46 행운의 색: 보라색	
巳	개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만 실행에 옮겨야 한다. 46년생 재물이 쌓여가는 소리가 들린다. 58년생 좋다 말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70년생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후회만 남게 된다. 82년생 처음에는 어려운 듯 보여도 한 번 물고가가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릴 것이다. 94년생 가족보다 낯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06년생 어설픈 사람의 조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수: 01 행운의 색: 노란색	
	돼지띠: 전치에 주인공은 없고 객만 많은 격이다. 35년생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다. 47년생 들어오기로 한 돈이 자꾸 지연되니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59년생 기다리던 일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겠다. 71년생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83년생 웬만한 일은 이해하고 다투지 마라. 95년생 가는 곳마다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이 있겠다. 07년생 다 내려놓고 보면 생각보다 훨씬 편해진다. 행운의 수: 15 행운의 색: 민트색	



전국교통신망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정희준 | 진행자: 노희설 |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권유경 | 진행자: 윤지현 | 작가: 정안숙
출몰운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충겨운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남도매거진 (16:05~16:55)

프로듀서: 이진아 | 진행자: 장원나 |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섭하지라~

달리는 라디오 (18:05~19:53)

프로듀서: 김미경 | 진행자: 최유규 |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주요 소식을,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지역채널 커머스 < 청도 신비 복숭아 >

전국 농수산업체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작 방송되는
지역채널 커머스. 이번 편에서는 경상북도 청도의 특산물인 매풀과 속이 뽀얀
6~7월이 제철인 신비복숭아를 소개한다.
방송 : 6월 30일(월)~7월 4일(금) 06:00~07:00, 16:00~17:00

네트워크발굴 서울광광 < 뽕고기 한판과 달콤한 디저트 편 >

4곳의 지역캐슬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현지인이 찾는 지역 탐방
프로그램. 이번 주는 중충동에 있는 뽕고기로 유명한 소문난 맛집과 실타래
빙수로 이름난 디저트 맛집을 찾아가다.
방송 : 7월 3일(목)~5일(토) 14:00~14:30

SO네트워크 <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

케이블 방송사 공동제작, 전국 각지의 명소를 여행하는 진정한 로컬여행 프로
그램. 국악인이자 방송인 오정해씨의 차분한 소개로 흥남 흥남을 소개한다.
방송 : 7월 2일(수)~4일(금) 13:00~13:50

CMYK